

나주 공기업 평균 연봉 7182만원...전력거래소 '최고'

14곳 기관장 연봉 평균 1억8630만원...전국 평균보다 100만원 높아 기관장 업무추진비 1300만원...사학연금 3400만원·한전KPS 없어 전력거래소 8933만·한전 8449만원...전국 공기업 평균 연봉 웃돌아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과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 14개 기관 가운데 전국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연봉을 넘은 곳은 9곳이었고,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전국 평균을 웃돈 기관이 7곳 인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공공기관 14곳 기관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 은 1억8630만원으로 전년 1억8960만원보다

1.74%(324만원) 감소했다. 지난 2019년 1억7583만원→2020년 1억8895만 원→2021년 1억896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이 들의 평균 연봉은 4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해 32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11%)을 비롯, 한전MCS(-21%), 한전KPS(-9.7%), 한전KDN(-4.8%) 등 전력관련 기관장의 연봉이 감소한 게 평균 연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분석된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장의 연봉은 전국 362개 기관

장 평균(1억8538만원)보다 92만원 많았다. 기관장 연봉이 2억원 넘는 곳은 한전(2억2487만 원)과 한전KPS(2억1759만원), 한전KDN(2억 1759만원), 한전MCS(2억2447만원), 농수산식 품유통공사(2억289만원) 등 5곳이었다. 나주 혁신도시 가운데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422만원)이었다. 뒤이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 원(2927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2001만원), 한 국문화예술위원회(1876만원) 순이었으며, 한전 KPS는 지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없었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공공기관 14곳의 정규직 현원은 4만4374명으로, 전년(4만 4238명)보다 0.3%(136명) 증가했다.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정규직 직원이 2만3629명으로, 295명(1.2%) 늘어 가장 큰 폭으 로 증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7명 줄어든 5533명으로 집계 됐으며, 기타 공공기관인 한전MCS(297명 (4083명→3786명)이나 줄었다. 이외 한전KPS(-39명) 등 14곳 중 6곳이 정규직 현원이 줄었다.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은 지난 2021년 891명에서 이듬해 1134명으로, 243명(27.2%)이나 증가 했다. 한전MCS(279명 ↑)와 한전(12명), 한국인터넷 진흥원(8명) 등 10개 기관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늘었다. 한전KPS(-69명)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 가원(-8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명) 등 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 수가 줄었다. 지난해 혁신도시 14개 기관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2만원으로, 전년(7177만원)보다 0.07%(5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350개 공공기관 평균 보수는 7036 만원으로, 이를 웃돈 혁신도시 기관은 7개였다.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곳 은 전력거래소로, 전국 평균보다 1897만원 많은 8933만원을 받았다. 한전(8449만원)과 농촌경제연구원(8215만원), 한전KPS(8215만원), 한전KDN(7351만원), 농 수산식품유통공사(7197만원),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7121만원)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6176만원), 한전MCS (6233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6361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6351만원),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6305만원), 농어촌공사(6816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7021만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보수액이 적었다. 전국 공기업 평균 연봉은 8302만원이었는데, 한 전은 이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고 그룹사인 한전 KDN과 한전KPS는 이에 못 미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베트남 흥브영 축제장에 마련된 'K-푸드' 소비자체험 홍보 현장이 현지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aT 제공>

베트남 '흥브영 축제' 황금연휴 뜨겁게 달군 K-푸드

aT, 5일간 홍보 행사 진행 떡볶이·홍삼 건강식품 등 시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춘진) 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베트남 최 대 국경행사인 흥브영 기념일 축제와 연계한 K-푸드 소비자체험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의 개천절이라고 할 수 있는 흥브영 기념 일은 건국왕조인 흥브영을 기리는 명절로, 매년 음 력 3월 10일 전후 10일간 하노이 북부 도시 푸토 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와 관광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수시장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에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고 자 주요연휴의 대체휴일 지정으로 최장 5일간 공 휴일이 이어져 기념일 전후 사상 최대 800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aT는 베트남 전역에서 방문객이 몰리는 현지 최대 소비시즌을 맞아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이 가장 집중되는 5일간 K-푸드 홍보부스를 운영했

다.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스크림과 떡볶이를 비롯한 홍삼 건강식품, 어린이 음료 등 다양한 제 품 시식을 진행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 이사는 "베트남 현지의 유 서 깊은 국경행사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현지인들 에게 대대적으로 K-푸드를 홍보할 수 있는 최적 의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국적과 상관없이 남녀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K-푸드의 우수성과 매 력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평림담 상류 하천쓰레기 주민 자율관리 협약



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 약 330㎡ 수거...수질개선 성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지사장 박정 수)와 평림담생물협동조합(이사장 김성규)은 최 근 '평림담 상류 하천쓰레기 주민자율관리사업' 위 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해당 사업은 환경부와 K-water에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직접 하천쓰레기를

관리해 상류지역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활성 화가 기대되고, 하류지역은 쓰레기를 사전 수거하 게 돼 깨끗한 수질을 보장받는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참여를 위해 평림담 상류 지역주민들은 지 난해 4월 평림담생물협동조합을 설립했으며, 협 약 이후 하천쓰레기 상시 수거 관리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해 1년간 평림담 저수구역 및 상류 하천에서 쓰레기 약 330㎡를 수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쌀 소비 촉진 '대학생 든든한끼 아침밥' 사업 협약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 4개 기관

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한국전력과 농림식품기 술기획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선대, 초당대 와 공사 본사에서 대학생 건강증진과 광주·전남지 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학생 든든한끼 아침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나주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은 정

부 정책을 뒷받침해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공 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 화하기로 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대학생들의 아 침 식사 문화를 확산하고, 가치 있는 쌀 소비를 장 출해 공익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1학기 시범사업 시행 후 지원범위 및 기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